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2, No. 4, pp.88~98(2008)

20~30대 여성의 체형별 기성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진숙* · 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Women's Satisfaction with Ready-to-wear by Body Type in Twenties to Thirties

Lee, Jin-Suk* · Lee, Jeong-Ran
Doc.,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with obese women's ready-to-wear by age range, this study surveyed the actual clothing purchase and wearing of women in their 20s and 30s with normal and obese body type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ir satisfaction with ready-to-wear by age and body type.

First, for normal body types, both women in their 20s and 30s use department stores the most. Meanwhile, obese women in their 20s make most of their purchases at internet shopping malls, while those in their 30s mostly go to department stores. For criteria for purchasing clothing, normal women both in their 20s and 30s value design most whereas, obese women put size and fit before design regardless of their age. Normal women in their 20s and 30s both were most unsatisfied with standardized design because they could not find designs they wanted. Obese women in their 20s and 30s also showed disapproval of unvaried sizes, indicating a distinct difference in body types and age. As well, the study found that both normal and obese women wear casual style the most, followed by semi-formal style. Also, regarding the images they were seeking when wearing clothing, the normal women wanted to look fashionable, while obese women wanted to look slim, regardless of age. Both body-type groups generally like preferred semi loose-fits the most, followed by tight-fit. They however, dislike relaxed loose-fitting.

Key Words : normal body type(정상체형), obese body type(비만체형), ready-to-wear (기성복), satisfaction(만족도), fit(맞음새)

Corresponding author; Lee, Jin-Suk, Tel.+82-10-8511-1289, Fax.+82-51-583-5975
E-mail: na-jinsuk@hanmail.net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비만인구에 대한 보건복지부[1]의 국민 영양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연령층은 40대 이상보다 체중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1992년 비만인구는 8.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32.4%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자는 1.3배, 남자는 2배로 증가하였다. 이제 비만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만의 큰 원인은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노동량이 감소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만은 각종 질환의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외모상의 컴플랙스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 위축과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은 20대를 비롯한 신세대의 체형이 과거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03년 국민체위조사[2] 결과 20대 여성의 신체 길이와 둘레가 1997년 국민체위조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는 결혼 후에도 주부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여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적극적이며, 기성복은 디자인에 있어 더욱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추세로 인해 기성복은 대부분 이러한 유행을 반영한 획일적인 피트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비만한 체형의 여성들은 기성복 브랜드에서 적합한 사이즈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 실정이다. 따라서 비만체형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의 기성복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비만체형과 정상체형 여성에 대해 기성복 만족도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비만체형에 대한 연구는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한 기성복 만족도 및 적합성에 관한 연구(김인화[3], 김희숙[4]), 비만여성을 위한 치수체계(오설영[5], 이진희[6]) 등이 있으나 기성복의 만족도를 표준체형과 함께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성복의 주요 구매자인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직업 및 체형에 따라 기성복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에 따른 기성복 구매 및 착용 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젊은 비만여성의 기성복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유행과 외모에 관심이 많고 연령에 따른 체형차가 있는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는 2007년 10월 ~11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30대 여성의 체형에 따른 비교를 위해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으로 분류하여 집단별로 의도표집 하였다. 분류기준은 윤지원[7], 김우경[8], 이진희[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만 판정지수인 RÖhrer지수, BMI(체질량지수),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RÖhrer지수 1.2이상~1.5미만은 정상체형, 1.5이상 비만체형, BMI는 18.5이상~23미만을 정상체형, 23이상을 비만체형으로, 가슴둘레는 90cm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비만체형으로 판정하였다. 총 28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242부 중 응답이 미흡한 것과 저체중인 42부를 제외하여 체형에 따른 비교를 위해 연령별, 체형별로 50명씩 선정하여 최종 2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김인화[10], 최영순[11]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1문항, 의복 구입에 관한 5문항, 의복 착용실태에 관한 7문항 등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중 연령과 신체치수에 관한 5문항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은 객관식으로 보기에서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여 변인의 빈도를 중심으로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치로 전반적인 착용현황을 알아보고, 다중비교,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체형별 기성복 구매 및 착용실태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체형별 신체치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에 따른 체형분포를 살펴보면, 정상체형은 20대 후반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후반 29%, 30대 초반 21%, 20대 초반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30대 후반이 32%로 가장 많았고, 20대 초반이 29%, 20대 후반이 21%, 30대 초반이 18%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단위 : 명(%))

일반적 사항 \ 체형		정상체형 (n=100)	비만체형 (n=100)	전 체
연령	20~24	19(19.0)	29(29.0)	48(24.0)
	25~29	31(31.0)	21(21.0)	52(26.0)
	30~34	21(21.0)	18(18.0)	39(19.5)
	35~39	29(29.0)	32(32.0)	61(30.5)

일반적 사항 \ 체형		20대(n=100)		30대(n=100)		전 체
		정상	비만	정상	비만	
직업	학생	18(36.0)	28(56.0)	0(0.0)	2(4.0)	48(24.0)
	판매 · 영업직	0(0.0)	2(4.0)	4(8.0)	4(8.0)	10(5.0)
	생산 · 기능직	1(2.0)	1(2.0)	5(10.0)	7(14.0)	14(7.0)
	사무직	18(36.0)	8(16.0)	6(12.0)	4(8.0)	36(18.0)
	공무원	6(12.0)	5(10.0)	10(20.0)	3(12.0)	24(12.0)
	자영업	1(2.0)	1(2.0)	2(4.0)	4(8.0)	8(4.0)
	전문직	1(2.0)	4(8.0)	2(4.0)	4(8.0)	11(5.5)
	주부	1(2.0)	0(0.0)	19(38.0)	20(40.0)	40(20.0)
	기타	4(8.0)	1(2.0)	2(4.0)	2(40.0)	9(4.5)
결혼여부	기혼	9(18.0)	2(4.0)	37(74.0)	37(74.0)	85(42.5)
	미혼	41(82.0)	48(96.0)	13(26.0)	13(26.0)	115(57.5)
자녀유무	유	5(10.0)	2(4.0)	33(66.0)	33(66.0)	73(85.9)
	무	4(8.0)	0(0.0)	4(8.0)	4(8.0)	12(14.1)
월평균 의복구입비	5~10만원 미만	14(28.0)	20(40.0)	17(34.0)	24(48.0)	75(37.5)
	10~20만원 미만	27(54.0)	21(42.0)	26(52.0)	12(24.0)	86(43.0)
	20~30만원 미만	8(16.0)	7(14.0)	6(12.0)	10(20.0)	31(15.5)
	30~40만원 미만	1(2.0)	0(0.0)	0(0.0)	3(6.0)	4(2.0)
	40~50만원 미만	0(0.0)	1(2.0)	1(2.0)	1(2.0)	3(1.5)
	50만원 이상	0(0.0)	1(2.0)	0(0.0)	0(0.0)	1(0.5)
거주지	부산	23(46.0)	39(78.0)	12(24.0)	17(34.0)	91(45.5)
	경남	27(54.0)	11(22.0)	38(76.0)	33(66.0)	109(54.5)

전체적으로 직업은 학생이 24%이고, 주부가 20%, 사무직 18%, 공무원 12%, 생산직 7%, 전문직 5.5%, 영업직 5%, 기타 4.5%, 자영업 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57.5%, 기혼이 42.5%로 나타났으며, 기혼인 20대는 12.9%, 30대가 87.1%로 월등히 많았다. 이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85.9%로 나타났다. 월평균 의복 구입비는 10~20만원 미만이 43%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5.8%, 30대가 44.2%로 20대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 거주지는 경남이 54.5%, 부산이 45.5%로 나타났다

체형별 신체치수는 <표 2>와 같다. 정상체형의 20대와 30대의 키는 20대가 평균 2cm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항목에서는 거의 유사한 반면, 비만체형은 모든 항목에서 20대와 30대간의 차이를 보였고, 20대가 30대보다 평균 키는 3cm 정도 크고, 둘레항목과 비만 정도도 크게 나타나 보건복지부[12]의 조사 결과와 같이 20대의 비만도가 높고, 둘레도 더 굵음을 알 수 있었다.

2. 기성복 구매실태

1) 의복 구매자 및 구매 장소와 이유

의복 구매는 정상체형의 경우 본인이 100% 직접 구입하나 비만체형은 본인이 95.5%, 나머지 4.5%는 가족이 대신해 주기도 하였다.

의복 구매 장소는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표 3>과 같다. 정상체형은 20대와 30대 모두 백화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경우 보세가게와 인터넷 쇼핑몰(19.7%)이 다음으로 많았다. 30대는 할인점이나 아울렛의 이용이 높아 연령에 따른 구매 장소의 차이를 보였다. 비만체형의 경우 20대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전문점, 백화점 순으로 선호하며, 30대는 백화점, 할인점이나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 순으로 나타나 오프라인의 의복 구입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이진희[13]의 연구에서 비만여성(20~59세)이 의복 구매 장소로 백화점을 선호했던 것과 유사하나 본 연구의 경우 20대 비만 여성은 좀 더 저렴하고 유행에 적합한 패션제품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므로 30대와 의복 구매 장소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의복 구매 장소의 선호이유는 <그림 1>과 같다. 정상체형과 비만체형 모두 다양한 디자인이 많아서 60%,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상체형은 적합한 가격이 16%이며, 비만체형은 다양한 사이즈가 25%, 적합한 가격이 20% 순으로 정상체형과 비만체형에 따른 선호이유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정상체형은 유행과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많은 장소를 선

<표 2> 체형별 신체치수

(단위: kg, cm)

항 목	정상체형 (n=100)				비만체형 (n=100)				F-Value
	20대		30대		20대		30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163.1 a	4.3	161.2 b	4.4	162.1ab	5.7	159.9 c	4.2	4.3**
몸무게	54.6 c	4.0	54.4 c	3.9	70.5 a	9.2	67.1 b	7.3	82.8***
가슴둘레	84.2 b	4.3	85.7 b	4.4	98.2 a	6.1	96.2 a	5.3	97.7***
허리둘레	70.0 c	4.1	70.3 c	3.2	80.4 a	6.2	78.3 b	5.1	63.8***
엉덩이둘레	94.1 c	4.2	95.2 c	3.9	105.5 a	6.4	102.9 b	5.5	60.1***
RÖhrer	1.3 b	0.1	1.3 b	0.1	1.7 a	0.1	1.6 a	0.2	158.3***
BMI	20.5 b	1.3	21.0 b	1.1	26.7 a	2.3	26.2 a	2.4	1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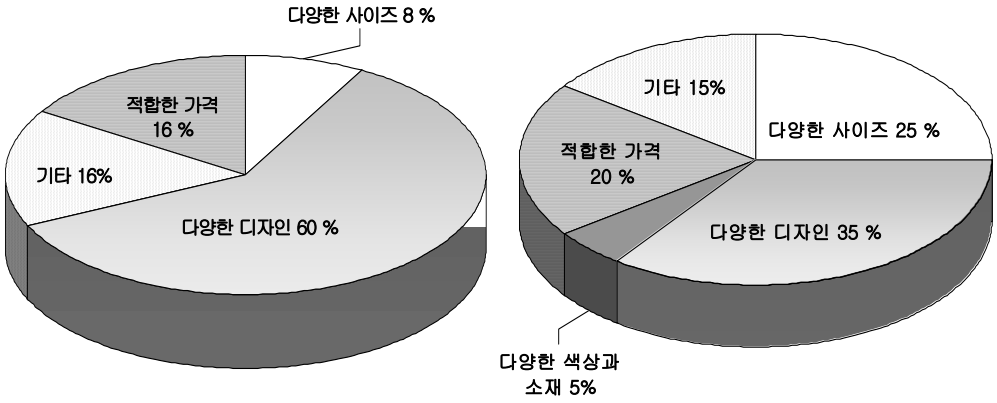
**p≤.01, ***p≤.001, a > b > c : Duncan-test, p≤.05수준

<표 3> 의복 구매 장소

(단위 : 명(%))

연령별 체형 / 구매장소	정상체형(n=100)		비만체형(n=100)	
	20대	30대	20대	30대
백화점	88(29.3)	97(32.3)	45(15.0)	71(24.2)
전문점	18(6.0)	29(9.7)	56(18.7)	25(8.5)
할인점/아울렛	40(13.3)	55(18.3)	41(13.7)	53(18.1)
맞춤점	3(1.0)	0(0.0)	4(1.3)	0(0.0)
대형패션 쇼핑몰	30(10.0)	23(7.7)	29(9.7)	29(9.9)
대형할인마트	2(0.7)	17(5.7)	9(3.0)	35(11.9)
시장	0(0.0)	6(2.0)	1(0.3)	3(1.0)
보세가게	59(19.7)	48(16.0)	29(9.6)	24(8.2)
TV홈쇼핑	1(0.3)	0(0.0)	2(0.7)	7(2.4)
인터넷 쇼핑몰	59(19.7)	25(8.3)	81(27.0)	43(14.7)
기타	0(0.0)	0(0.0)	3(1.0)	3(1.0)

가중치=(1순위×3)+(2순위×2)+(3순위×1)



-정상체형-　　-비만체형-

<그림 1> 체형에 따른 구매 장소의 선호이유

호하는데 비해 비만체형은 체형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가 많은 구매 장소를 선호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 외 응답으로 비만체형의 경우 판매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를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한다고 답하여 비만체형이나 특수체형의 경우 의복 구매시 착용해 보는 장소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 판매 측면에서 비만 여성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구매공간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의복 구입시 선택기준

의복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기준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표 4>와 같다. 정상체형의 경우 20대와 30대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비만체형은 20대와 30대 모두 사이즈 및 맞음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다음으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진희[14]의 선행연구에서 비만여성이 의복 구입시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기준으로 가격, 디자인, 치수 순으로 나타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즉 의복 구입시 선택 기준은 체

형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가 보이므로 비만체형을 위한 다양한 사이즈의 개발은 필수이며, 빅 사이즈 이미지 보다는 패셔너블한 의류에 사이즈의 조절이 가능한 기능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의복 구입시 불만족 사항

의복 불만족 사항은 <표 5>와 같다. 의복 구입시 선택 기준에서와 같이 정상체형의 20대, 30대 모두 원하는 디자인을 찾기 어렵다가 48%, 42%로 가장 높아 획일화된 디자인에 불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만체형은 20대, 30대 모두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다(54.0%, 46.0%)가 불만족 사항이며 체형별, 연령에 따른 뚜렷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인화[15]의 연구에서 35~59세의 중년 여성 대상으로 재킷의 전반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이 가격(2.48%)이었던 것과 달리 나타나 의복의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젊은 연령층은 가격에 대해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 비만 여성은 의복 구입시 가격보다 치수의 다양성을 더욱 중요시 하므로 이러한 요구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기성복 업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3. 기성복 착용실태

1) 의복 착용 치수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원[16]의 KS K0051 여성복

<표 4> 의복 구입시 선택기준

(단위 : 명(%))

선택기준 \ 연령별 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	
	20대	30대	20대	30대
사이즈/맞음새	34(11.3)	42(14.0)	92(30.7)	77(25.7)
디자인	112(37.3)	87(29.0)	84(28.0)	71(23.7)
색상	8(2.7)	9(3.0)	14(4.7)	14(4.7)
소재/옷감	14(4.7)	22(7.3)	4(1.3)	14(4.7)
가격	43(14.3)	35(11.7)	30(10.0)	33(11.0)
브랜드 유명도	6(2.0)	2(0.7)	8(2.6)	8(2.7)
활동성	5(1.7)	16(5.3)	8(2.6)	7(2.3)
관리가 쉬운 것	2(0.7)	6(2.0)	5(1.7)	11(3.6)
유행성	5(1.7)	5(1.7)	2(0.7)	3(1.0)
나의 체형과의 조화	48(16.0)	62(20.6)	35(11.7)	51(17.0)
다른 옷과의 조화	23(7.6)	14(4.7)	18(6.0)	11(3.6)

가중치=(1순위×3)+(2순위×2)+(3순위×1)

<표 5> 의복 구입시 불만족 사항

(단위 : 명(%))

불만족사항 \ 연령별 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		전체
	20대	30대	20대	30대	
원하는 디자인을 찾기 어렵다	24(48.0)	21(42.0)	12(24.0)	13(26.0)	70(35.0)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다	4(8.0)	8(16.0)	27(54.0)	23(46.0)	62(31.0)
원하는 색상을 찾기 어렵다	3(6.0)	4(8.0)	0(0.0)	2(4.0)	9(4.5)
소재가 마음에 들지 않다	4(8.0)	5(10.0)	2(4.0)	2(4.0)	13(6.5)
가격이 적당하지 않다	14(28.0)	11(22.0)	9(18.0)	10(20.0)	44(22.0)
기 타	1(2.0)	1(2.0)	0(0.0)	0(0.0)	2(1.0)
전 체	50(100.0)	50(100.0)	50(100.0)	50(100.0)	200(100.0)

치수 규격에 따라 치수를 분류하였다. 의복 착용시 치수는 상의와 하의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상의에 있어서 정상체형의 20대가 85-92-160(52.0%, 구호칭 55), 30대는 88-94-160(54.0%, 구호칭 66)를 가장 많이 착용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의복 치수의 증가를 알 수 있었다. 하의는 20대, 30대 모두 70-94(54.0%, 66.0%, 구호칭 66)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는 상의와 하의가 치수가 동일하지 않아 다소 여유있게 하의를 착용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품의 호칭이 신체치수를 잘 커버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업체마다 동일 호칭에 대해 제품치수가 달라 구매시 혼란을 초래하는 현실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체형은 20대와 30대가 상의 91-96-160(38.0%, 40.0%, 구호칭 77), 하의 73-96(36.0%, 46.0%, 구호칭 77)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 착용 스타일과 선호이유

직업에 따라 주로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은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정상체형과 비만체형 모두 캐쥬얼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다음으로 세미정장, 정장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학생, 판매 · 생산직, 전문 · 사무직, 주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학생이 캐쥬얼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정상보다 비만 학생이 86.7%로 높았다. 정상체형의 전문직 및 사무직 여성 52.2%가 세미정장을 선호하지만 비만체형의 경우 전문직, 사무직 여성은 72.7%가 캐쥬얼을 즐겨 입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도 캐쥬얼을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생산직 여성의 비율은 작았지만 캐쥬얼의 착용이 더 많았고, 주부들은 캐쥬얼 다음으로 세미정장을 즐겨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별 차이는 정상체형에서 캐쥬얼을 선호하는 20대와 30대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비만체형에서는

<표 6> 직업별 주로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

(단위 : 명)

체형 / 스타일 / 직업	정상체형(n=100)				비만체형(n=100)			
	정장	세미정장	캐쥬얼	전체	정장	세미정장	캐쥬얼	전체
학 생	0(0.0)	4(22.2)	14(77.8)	18(100.0)	0(0.0)	4(13.3)	26(86.7)	30(100.0)
판매 · 생산직	2(20.0)	4(40.0)	4(40.0)	10(100.0)	4(28.6)	1(7.1)	9(64.2)	14(100.0)
전문 · 사무직	3(6.5)	24(52.2)	19(41.3)	46(100.0)	3(9.1)	6(18.2)	24(72.7)	33(100.0)
주 부	2(10.0)	8(40.0)	10(50.0)	20(100.0)	0(0.0)	7(35.0)	13(65.0)	20(100.0)
기 타	0(0.0)	2(33.3)	4(66.7)	6(100.0)	0(0.0)	0(0.0)	3(100.0)	3(100.0)
전 체	7(7.0)	42(42.0)	51(51.0)	100(100.0)	7(7.0)	18(18.0)	75(78.0)	100(100.0)

<표 7> 의복 스타일에 따른 선호이유

(단위 : 명(%))

체형 / 스타일 / 선호이유	정상체형(n=100)				비만체형(n=100)			
	정장	세미정장	캐쥬얼	전체	정장	세미정장	캐쥬얼	전체
편안함	0(0.0)	11(22.0)	39(78.0)	50(100.0)	0(0.0)	5(7.8)	59(92.2)	64(100.0)
사회활동	4(23.5)	11(64.7)	2(11.8)	17(100.0)	5(45.5)	4(36.4)	2(18.4)	11((100.0)
체형의 결점보완	1(25.0)	0(0.0)	3(75.0)	4(100.0)	2(15.4)	4(30.8)	7(18.1)	13(100.0)
착용시 외모에 대한 만족감	2(8.0)	17(68.0)	6(24.0)	25(100.0)	0(0.0)	5(45.5)	6(54.5)	11(100.0)
가 격	0(0.0)	1(100.0)	0(0.0)	1(100.0)	0(0.0)	0(0.0)	0(0.0)	0(0.0)
기 타	0(0.0)	2(66.7)	1(33.3)	3(100.0)	0(0.0)	0(0.0)	1(100.0)	1(100.0)
전 체	7(7.0)	42(42.0)	51(51.0)	100(100.0)	7(7.0)	18(18.0)	75(75.0)	100(100.0)

20대의 캐주얼 착용이 크게 높았다. 비만한 30대는 20대에 비해 세미정장을 다소 선호(26.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표 7>을 살펴보면, 체형에 관계없이 모두 편안함 때문에 캐쥬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여성의 대부분인 92.2%가 편안해서 캐쥬얼을 즐겨 착용하여 정상체형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상체형 여성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 세미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편안함 외에 체형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캐쥬얼을 선호하였고, 외모의 만족감 때문에도 캐쥬얼의 선호도가 약간 더 높았다.

3) 의복 착용시 추구하는 이미지

직업별 의복 착용시 추구하는 이미지에 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상체형 여성은 의복 착용시 세련되어 보이기를 가장 원하였고, 비만여성은 날씬해 보이길 가장 원하여 체형에 따른 추구 이미지가 뚜렷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업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상체형은 판매, 생산직과 전문, 사무직, 주부는 모두 세련되어 보이는 이미지를, 학생은 날씬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비만체형에서는 판매, 생산직 종사자만 세련된 이미지를, 다른 직업 종사자는 모두 날씬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판매직의 경우 직업상 필요에 의해 두 체형 모두에서 세련된 이미지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의복 착용시 선호 맞음새

의복 착용시 맞음새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2>과 같다. 체형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약간 여유 있는 맞음새를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꼭 맞는 맞음새를 선호하였다. 꼭 맞는 맞음새를 선호하는 정상체형은 20대가 42%, 30대 36%이며, 비만체형은 30대가 30%, 20대가 24%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러나 모든 연령과 체형에서 넉넉한 맞음새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피트한 유행현상이 여성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혜정[17]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유가 많은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인20대와 30대는 모두 젊은 여성에 포함되어 맞음새의 선호도 비슷하며, 따라서 20, 30대에서는 정상체형은 물론 비만체형에서도 과거의 인식처럼 뚱뚱한 몸매를 가리기 위해 여유분을 많이 주기 보다는 디자인 요소, 패턴의 절개선 등을 이용하여 날씬해 보이도록 하거나, 활동성을 위한 신축성 있는 소재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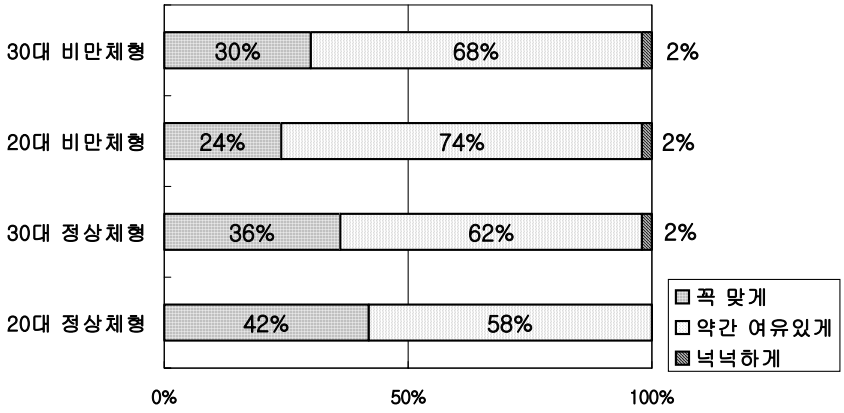
5) 수선을 많이 하는 품목

20, 30대 여성이 구입한 의복에 대해 수선을 많이 하는 품목은 <그림 3>와 같다. 전체적으로 피트성이 요구되는 바지를 가장 많이 수선하며, 스커트는 거의 수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라서는 비만체형의 20대에서 블라우스(8.0%)를, 30대에서 재킷(4.0%)을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이라도 상의에 있어서는 크게 수선하지 않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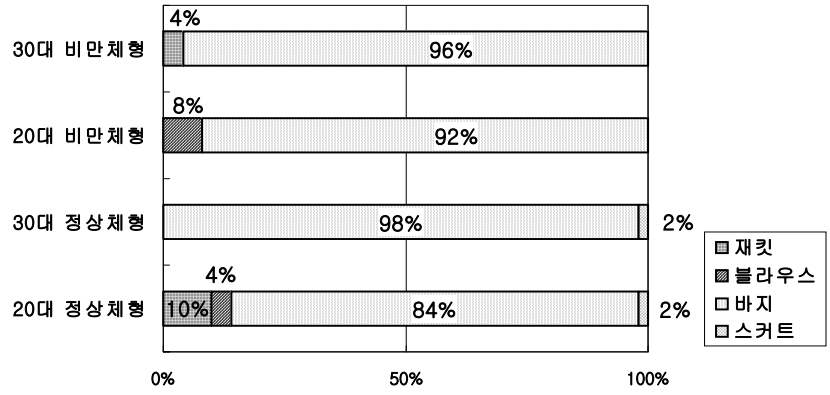
<표 8> 직업별 의복 착용시 추구하는 이미지

(단위 : 명(%))

체형 / 이미지 / 직업	정상체형(n=100)					비만체형(n=100)				
	세련	품위	유행	날씬	전체	세련	품위	유행	날씬	전체
학 생	5(27.8)	0(0.0)	3(16.7)	10(55.5)	18(100.0)	8(26.7)	0(0.0)	3(10.0)	19(63.3)	30(100.0)
판매 · 생산직	6(60.0)	2(20.0)	0(0.0)	2(20.0)	10(100.0)	7(50.0)	3(21.4)	0(0.0)	4(28.6)	14(100.0)
전문 · 사무직	26(56.5)	4(8.8)	0(0.0)	16(34.7)	46(100.0)	8(24.2)	1(3.0)	2(6.1)	22(66.7)	33(100.0)
주 부	16(80.0)	2(10.0)	1(5.0)	1(5.0)	20(100.0)	6(30.0)	1(5.0)	1(5.0)	12(60.0)	20(100.0)
기 타	3(50.0)	0(0.0	0(0.0)	3(50.0)	6(100.0)	2(66.7)	0(0.0)	1(33.3)	0(0.0)	3(100.0)
전 체	56(56.0)	8(8.0)	4(4.0)	32(32.0)	100(100.0)	31(31.0)	5(5.0)	7(7.0)	57(57.0)	100(100.0)



<그림 2> 의복 착용시 선호 맞음새



<그림 3> 수선을 많이 하는 주요 품목

으로 나타나 의복 치수의 불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성복의 주요 구매자인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및 직업에 따라 체형별 기성복 만족도 분석을 통해 정상여성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비만여성의 연령대별 기성복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복 구매 장소로 정상체형은 20대와 30대 모두 백화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만체형의 경우 20대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높았고, 30대는 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구매 장소의 선호이유는 정상체형은 유행과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많은 장소를 선호하였으며, 비만체형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가 많은 구매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연령별, 체형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비만체형의 경우 의복 구매시 착용해 보는 장소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의복 구입시 선택기준으로 정상체형은 20대와 30대 모두 디자인을, 비만체형은 모두 사이즈 및 맞음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의복 선택 기준은 연령보다는 체형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의복 구입시 불만족 사항 역시 체형에 따라 뚜렷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상체형의 여성은 원하는 디자인을 찾기 어려운 것에, 비만체형은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높게 나타내었다. 따라서 비만 여성을 위해 다양한 사이즈의 개발뿐만 아니라 패셔너블한 의류에 사이즈의 조절이 가능한 기능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결과이다.

3. 주로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은 정상체형과 비만체형 모두 캐쥬얼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다음으로 세미정장, 정장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캐쥬얼을 가장 많이 착용하였고, 그 이유로는 체형에 관계없이 모두 편안함 때문에 캐쥬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체형은 편안함 외에 착용시 외모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별 선호이유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4. 의복 착용시 추구하는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정상체형의 경우 세련되어 보이고 싶어 하였고, 비만체형은 날씬해 보이길 가장 원하였다. 직업별로 정상체형의 주부가 가장 세련되어 보이길 원하였고, 비만한 여성들 중에서는 전문직 및 사무직이 가장 날씬해 보이길 원하였다.

5. 의복 착용시 선호 맞음새는 체형과 연령간의 차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여유있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꼭 맞는 맞음새를 선호하였으며, 비만한 체형이라도 넉넉한 맞음새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20대와 30대 비만 여성은 정상체형의 여성에 비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구매공간과 서비스가 더 필요하며, 비만한 체형을 위한 큰 사이즈의 옷이라도 적절한 여유분과 피트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패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는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알리기 싫어하고, 대중적 공간의 이용을 주저하는 비만여성을 위해 의복 구매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의 비만여성을 위한 가상피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형별 연령별 피험자의 수가 많지 않고 거주지역이 제한적이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편)(2006),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pp. 39-43.
2)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보고서”, *사이즈코리아,* 자료검색일 2007, 1, 18, 자료출처 http://sizekorea .kats.go.kr
3) 김인화 · 권수애 (2007), "중년 여성의 기성복 재킷 구입실태 및 만족도", *한국의류학회지, 31 (3),* pp398-409.
4) 김희숙 (2006), “의복설계를 위한 비만여성의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 8 (1),* pp.64-70.
5) 오설영 (2000),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설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이진희 (1995), “성인 비만 여성의 체형특징 및 기성복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윤지원 (2007), “20대 비만 남성을 위한 의복치수의류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2-17.
8) 김우경 (2006), “성인여성의 비만 기준설정을 위한 예측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
9) 이진희 (1995), op.cit., pp. 7-8
10) 김인화 (2006), “중년여성의 재킷 패턴 개발을 위한 착용만족도와 맞음새 평가”,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36-142.
11) 최영순 (2000), “Plus-size 소비자의 의복행동에 따른 one-to-one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11-118.
12) 보건복지부(편), op.cit., pp. 39-43.

13) 이진희 (2001), “성인 여성의 기성복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 (4),* pp. 357-363.
14) Ibid., pp.357-363.
15) 김인화 · 권수애, op.cit., pp398-409.
16) “성인 여성복의 치수”, (2004, 12, 22),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자료검색일 2007, 1, 18, 자료출처 http://www.standard.go.kr
17) 석혜정 · 김인숙 (2003), “성인 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선호 경향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1 (9),* pp. 17-29.

접수일(2008년 1 월 28일)
수정일(1차 : 2008년 3월 5일)
게재확정일(2008년 3월 10일)